

난무하는 TV 속에서 사치향이 느껴진 거야...



김희동
KT스카이라이프 편집위원

바야흐로 UHD TV 전성시대가 왔다. 시장조사업체 IHS마켓의 보고서에 따르면 FHD를 포함한 HD TV의 점유율 아성이 작년 처음으로 UHD TV에 의해 50% 밑으로 무너졌다. UHD는 올해 56% 정도로 격차를 벌리며 치고 나가 내년부터는 60%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1년부터 UHD 패널이 시장에 빛을 보기 시작했으니 10년도 채 되지 않아 이런 쾌거는 인정해 줘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전 세계적 성공의 이면에는 프리미엄 TV 시장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자 사이에서 치열한 아니 불쌍사나울 정도로 이진투구격의 소모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착잡한 생각이 든다. 양 사의 해살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유가 바로 가전을 대표하는 S사와 L사이기 때문이다. 이 두 회사 사이에서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게 된 사건은 유럽최대가전박람회인 IFA 2019에서이다. 주지하다시피 8K TV의 가로 픽셀 수는 7,680개로 FHD보다는 16배, UHD보다는 4배나 우수하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화소수라 할지라도 시청자가 체감하는 해상도는 화질선명도 CM(Contrast Modulation) 값에 의해 달라진다고 L사가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부터다. S사의 QLED 8K TV 화소수는 L사와 같으나 CM 값이 국제 기준인 50%에도 한참 못 미치는 12%! 그에 반해 자사 제품인 OLED 8K의 경우 90% 이상이라 주장하였다. 화질선명도는 인접한 화소끼리 얼마나 잘 구별되는지를 나타낸 값으로 흰색과 검은색의 휘도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흰색 휘도가 100일 때 검은색 값이 5면 CM 값은 90%, 78이면 12% 정도가 된다.

사실 돌이켜 보건데, 비단 IFA 2019만의 일은 아니다. 하인리히가 일찍이 말했다. 하나의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경미한 사고와 중대한 사고가 있을 거라고. 양사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로를 신고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먼저 경미한 사고는 지난 CES 2014 때의 일이다. 같은 가변형 패널을 두고 LCD-Only 정책의

S사는 'Bendable', Two-track 전략(보급형 LCD & 프리미엄 OLED)의 L사는 'Flexible'이라 다르게 부르며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 발단은 CES 2017에서도 계속되었다. S사가 UHD 모델명에 기존 SUHD를 버리고 QLED를 사용하면서 부터다. 엄밀히 따지면 QD-LCD by LED BLU라 해야 맞다. 즉, 퀀텀닷(QD) 필름을 LED 광원의 백라이트 유닛(LED BLU)에 덧붙여 색재현성을 높여주는 LCD TV인 것이다.

퀀텀닷은 인공의 나노결정(Nano crystal)으로 지름이 가늘수록 파장이 짧은 빛이 방출되고 반대로 굵어질수록 파장이 긴 빛이 방출된다. 만약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에서 색을 내기 위한 RGB 유기 발광물질을 양자효과로 발광하는 QD로 대체한 QLED였다면 L사도 수긍했을 것이다. LCD와 OLED의 가장 큰 차이점은 BLU 유무에 있고, 확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는 CM 값의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빛이 있는데 깜깜한 어둠을 재현하기란 쉽지 않다. LCD는 액정(Liquid Crystal) 화면으로 액정에 전압을 인가하면 분자 배열이 한 방향으로 나열되어 투명해져 빛이 통과하는 원리이다. 여기에 쓰이는 BLU가 기존 형광등의 일종인 CCFL에서 LED로 대체했을 뿐인데 QLED라 하니 이름이 비슷한 OLED L사의 억울함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물론 이러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금의 우수한 작품이 탄생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Curved에서 Bendable도 모자라 이제는 Rollable까지 왔다. 기술 자체를 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 다만 휴대할 필요도 없는 가전을 굳이 접어서 보관할 가정이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8K TV가 출현한 지 4년이 되어간다. 그러나 올해 판매 예상은 32만 대로 초라하기 그지없다. 점유율이 0.14%라니, 작년만 1억 대 이상 팔린 4K와 너무나 대조된다. 콘텐츠 부족도 이유라면 이유겠지만 지나친 고사양 경쟁에서 오는 높은 가격 또한 한몫했다. 그것보다 시청자의 편의성(UI/UX)을 극대화 할 수 있는 AI 연동이 시급해 보인다. 휘고, 펴고, 말고 또 인피니티 베젤이 좀 아니면 어떠한가? 벽과 TV 사이에 틈이 좀 있으면 어떠한가? 하드웨어 경쟁은 4K로 충분하다.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방송과기술 편집부



방송과기술 편집장
송주호



OBS 방찬호



아리랑국제방송 이선진



SBS 강동민



tbs 박병도



MBC 이용성



EBS 김준환



KBS 김대한



BBS 박진용



YTN 나영채



CBS 김동희



기자 이진범

방송과기술

BROADCASTING & TECHNOLOGY
Vol.292 2020. 4

발행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07995)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0층
Tel. 02-3219-5635~42 / Fax. 02-2647-6813
www.kobeta.com / E-mail. kobeta@naver.com

발행인 이상규 **편집인** 김준성 진신우
김종기 신정근 조상우 한성주 홍재현
손근선 심영우 전준하 박치규 조찬제
곽재호 김진호 장해완 안의섭 김상철
김동현 이승환 김경태 박진수 고종국
김성찬 황인규 박태형 **편집장** 송주호
편집위원 김대한 이용성 강동민 김준환
김동희 박진용 박병도 이선진 김희동
나영채 방찬호 **편집-취재기자** 이진범

편집디자인-인쇄 P3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9 유삼빌딩 3층

Tel.02-3141-2760 / Fax.02-3141-5569

회원사 KBS MBC SBS EBS CBS
YTN kt skyLife arirang BBS
VFORCE TBS OBS T2N WBS TBC
CJB KNN kbc G1 JIBS TTB JTJV
ubc NATV WBS MBN

구독 신청

- 방송과기술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한 후 전화 혹은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 과월호 구입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6개월 5만원 / 1년간 9만원 / 2년간 17만원
- 계좌 : 신한은행 100-030-515021
(주)월간 방송과기술 (예금주)
- Tel.3219-5635 / Fax.2647-6813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안내문 발송
- 과월호 방송과기술 PDF 열람 가능
- KOBA(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 무료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KOBA 국제 방송기술 컨퍼런스 등록 시 할인 적용(구독 권수에 한정)
- 기타 본 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원고 기고 및 광고 문의

Tel.02-3219-5642 (사무국)

월간 방송과기술 홈페이지

tech.kobeta.com

